

국악인 박애리 “내 고향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해야죠”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동참

“평생 공부해야 할 판소리를 시작한 고향 목포가 제 평생 안식처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내 고향을 살리는 마중물인 전남 고향사랑기부제에 모두들 참여해주세요.”

목포 출신 국악인 박애리(사진)씨가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참여해 고향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안착을 응원했다. 38년째 국악을 하고 있는 박애리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창극단에서 생활했으며, 한국문화예술 명인 선정, 대통령상 2회 수상 등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류 열풍 드라마 대장금의 OST로 유명한 ‘오나

리’를 불러 화제가 됐으며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 출연해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렸다. 특히 국악 대중화를 위한 재능기부와 예술계 꿈나무 육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출향민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MG새마을금고중앙회, 완도군에 생수 전달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경우)는 최근 전남 완도군청에서 부군수와 안세찬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이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강진완도 새마을금고 김영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생수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가뭄피해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 도서 주민들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박치훈 회장은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일부 완도지역의 급수제한이 가중되는 시기에 MG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부가 우리 도서주민들의 갈증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 착한일터 가입 나눔 동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 이하 전남사랑의열매)는 최근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센터장 박종인)가 2023년 2호 착한일터로 가입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에서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박종인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일터 협약 및 가입식을 진행했다.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 직원 19명은 정기기부 약정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며, 기부금은 전남도내 복지사업비로 사용된다. 박종인 교원 빨간펜 목포센터장은 “직원들이 한마음을 모아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강대 박경우 단장

광주·전남창업보육협의회장재선임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박경우(사진) 단장이 최근 제 14대 광주·전남창업보육협의회장으로 재선임됐다.

광주·전남창업보육협의회는 동강대를 비롯해 전남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력공사 등 지역 30개 기관 창업보

육센터로 구성돼 있다. 박 회장은 “창업보육센터는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관 간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창업플랫폼의 중추적 역할의 창업보육센터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회장은 지난 1999년 동강대 창업보육센터 개소 이래 스타트업의 교육과 컨설팅, 창업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왔고 2019년 8월 창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물절약 실천 캠페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회원들은 최근 첨단시민의숲 3.1km 산책길을 왕복으로 달리며 거품 극복을 위한 ‘물절약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제공>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공각지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헬로키즈 체육교실(재)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00 오아시스(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특집 더 캠프(재)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키즈 과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3]	00 영상앨범 선(재) 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공각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00 PD수첩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00 헛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KBS 뉴스라인	10 스튜디오 K	30 100분토론	20 모범택시 2(재)
[12]	10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아직도	20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특집 더 캠프(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동네 한 바퀴(재)	55 TV예술무대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포맷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로보가 풀리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뉴스 12	18:30 번개망토의 비밀 스페셜
07:15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버그와 블랙캣
07:45 뽕뽕뽕 뽕부맨	13:00 바닷가 사람들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엉덩방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50 극한직업
08:20 출동! 슈퍼핑크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로보가 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모락모락, 집밥 기행 2부 강원도 밥심 맛보드래요>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파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고고디노 우리동네공룡	16:40 엉덩방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음 2월 16일 甲子) ☎ 010-9790-8237

<p>36년생 주어진 현상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48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60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72년생 아차 하면 후회할 것이니 시간 할애를 잘해야 한다. 84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96년생 용기가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56</p>	<p>42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54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66년생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당황하리라. 78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길잡이와 함께하도록 하자. 90년생 기초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02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4, 78</p>
<p>37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을 염두에 둔다. 49년생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61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띈다. 73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85년생 길잡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팔이 이루어라. 97년생 단안을 내릴 단계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46, 55</p>	<p>43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니라의 여부가 관건이다. 55년생 고난이도의 일이나 신경 써야겠다. 67년생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79년생 무리하지 않는 것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91년생 다 듣는다면 완성이 높아지겠다. 03년생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일에서 비롯된다. 행운의 숫자 : 45, 70</p>
<p>38년생 의외로 틀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50년생 확신하고 있다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부화뇌동하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74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86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98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7, 67</p>	<p>44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56년생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68년생 향심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80년생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의 씨앗이 되리라. 92년생 여태까지 보류해 왔던 일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이다. 04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0, 63</p>
<p>39년생 예리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51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63년생 구석을 다 맞추다 보면 부담스러워진다. 75년생 두근두근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으리라. 87년생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9년생 점점 줄어들어서 상당히 부족하니 속히 보완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16, 51</p>	<p>45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나, 69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81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81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형태가 보이리라. 93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 보면 길잡이를 부르게 된다. 05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4</p>
<p>40년생 재판사에 흥왕의 빛이 역력하다. 52년생 뜻밖의 환심을 보이는 이를 경계하라. 64년생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성사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76년생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많은 손재가 따른다. 88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 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00년생 급한 것부터 조처되었을 때 실리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62</p>	<p>34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46년생 상승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58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70년생 취하고 버림에 있어서 실심이 있어야겠다. 82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라. 94년생 앞마당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2, 89</p>
<p>41년생 보기 드문 현상 앞에서 놀라라. 53년생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65년생 마음가짐 못지않게 실행이 중요하다. 77년생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이다. 89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01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에 까지 수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54</p>	<p>35년생 관계의 인식이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47년생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을 인식하게 되리라. 59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픔일 것이니 가까이 감수하라. 71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83년생 활로 개척을 도모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95년생 뜻이 관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행운의 숫자 : 17, 76</p>